

고성왕곡마을보존회 최종복 사무국장

“체험축제 차별화 계획”

사단법인 고성 왕곡마을보존회는 국가 중요민속 자료 제235호로 지정된 왕곡마을을 보존하고, 가꾸기 위해 2004년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돼 설립한 단체다.



처음에는 60대 어르신들이 주축이 돼 활동했으나 지금은 50대인 함석주 회장(54세)과 최종복 사무국장(53세)이 맡고 있다.

사무실에는 최사무국장과 군청에서 파견 나온 여직원 1명이 상근하며 방문객들에게 왕곡마을에 대해 소개하고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다.

또 매년 1회씩 마을 초가지붕 이엉잇기 작업을 맡아하고 있으며,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왕곡마을 전통체험축제도 주관하고 있다.

최종복 사무국장은 “오는 겨울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전통체험축제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할 계획”이라며 “수성문화제 등 다른 행사와 차별을 뒤 왕곡마을만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왕곡은 “왕이 사는 골짜기”

왕곡마을 지명변천사 ... 王谷 → 旺谷 → 五峯

왕곡마을은 1631년에만 해도 왕이 사는 골짜기라는 의미의 왕곡(王谷)으로 불리다, 1884년에는 ‘왕성한 기운이 넘치는 골짜기’란 의미의 왕곡(旺谷)으로 변경됐다. 또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는 오봉리로 변경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향토사학자 김광섭씨는 “간성읍 지에 따르면 1631년에는 왕곡(王谷)이었으나 1884년에는 왕곡(旺谷)으로 표기되고 있다”며 “임금왕자를 지명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고려 공양왕이 간성군으로 추방돼 이곳에서 살해됐다는 설이 있는 점으로 미뤄 공양왕이나 그 후손들이 숨어 살았던 데서 부쳐진 이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김씨는 또 왕곡(王谷)에서 왕곡(旺谷)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조선 조정에서 임금왕자를 사용하는데 대해 문제를 삼아 변경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고 했다.

왕곡리는 1884년 인구증가로 왕곡리, 금성리, 적동리 3개리로 분리됐다. 왕곡리는 강릉 최씨, 금성

리 양근 함씨, 적동리는 용궁 김씨가 집성촌을 이뤘다.

그후 1914년 일제가 왕곡리, 금성리, 적동리 3개리를 합쳐 단순하게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 오봉리로 변경했다. 1963년에는 옛 왕곡리와 금성리를 합쳐 오봉1리, 적동리를 오봉2리로 구분했다. 현재의 왕곡마을은 옛 왕곡리와 금성리가 합쳐진 것이다.

오봉에는 두백산(뫼산), 골보봉(골미봉), 제공산(제골산), 대곡산(큰골산) 등 4개가 공통으로 들어가지만, 나머지 1개의 산은 두가지 의견이 있다. 과거 장현리쪽 오음산과 과거 화정리(현 인정리)쪽 호근산(갯가산) 둘중 하나를 넣는 것이다.

한편 왕곡마을은 왕성한 기운이 넘치는 고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동안 많은 인물을 배출했다. 최근 인물로는 함형구 전 고성군수를 비롯해 최문철 전 원주우체국장, 최인철 전 인제경찰서장, 최명철 전 속초우체국장, 최상철 전 속초도서관장, 함승시 전 강원대교수 등이 있다.



“1996년 고성지역을 초토화시킨 고성산불이 두백산을 넘어 마을로 번졌는데, 어느 순간 송지호쪽에서 역풍이 불면서 사그러들었다”며 “하늘이 우리 마을을 지켜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왕곡마을의 기와집이나 초가지집이나 모두 안방, 사랑방, 마루, 부엌, 광(창고)이 한 건물내에 수용되어 있으며, 외양간이 붙어 있는 기억자형 겹집구조다. 초가지집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밀집·보존되고 있다.

대문 없는 앞마당 · 담장 높은 뒤란

또 앞마당은 대문이 없어 개방적인 반면 뒤란(뫼마당)은 담장을 비교적 높이 쌓아 부엌문을 통해 출입하도록 했으며, 장독이나 쌀독 등을 두었다. 일부 닭과 토끼 등의 가축을 가둬 기르는 경우도 있었다.

굴뚝은 진흙과 기와를 쌓아 올려서 만든 뒤 항아리를 얹어 놓았다. 이는 굴뚝을 통해 나온 불씨가 외부로 옮겨붙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과 열기를 집내부로 다시 들여보내기 위한 것으로 선조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왕곡마을은 현재 모두 47채의 가옥이 있다. 기와집이 29채, 돌기와가 1채, 초가지집이

14채, 슬레이트 건물이 3채다. 이 가운데 8채는 고성군 소유의 가옥으로 사람이 살지 않으며, 관광객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주민등록상 인구는 109명이지만, 실제 거주는 70여명 남짓이라고 한다. 주민들은 주로 농사일에 종사한다. 다만 소를 통해 농사를 짓던 것에서 이제는 경운기 등 농기계를 이용한다는 게 다르다. 농사일과 함께 송지호에서 재첩을 채취해 팔고, 1년에 한번씩 초가지붕 이엉잇기 등 전통가옥을 보존하기 위한 일거리도 수입원이 되고 있다.

지난 10일 일행 3명과 함께 왕곡마을을 찾은 김용수씨(중앙대 아동청소년학과 석사과정)는 “건축사진을 찍기 위해 방문했는데, 전통이 살아있으며, 인락하고 포근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하회마을 등 전국의 유명한 전통마을을 찾아봤지만, 왕곡마을이 훨씬 정감있고 옛모습을 잘 보전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한편 왕곡마을에는 전통가옥들과 함께 1919년 설립된 오봉교회가 있으며,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 20여평 남짓한 작은 교회로 90여년간 마을 주민들과 희노애락을 함께하고 있다.



☞ 왕곡마을 찾아가는 길 = 영동고속도로나 미시령도로를 타고 속초로 진입한 뒤 7번국도를 타고 달리다 공현진교를 건너기전에 좌회전하면 마을 입구가 나타난다. 진부령국도를 타고 올 경우 대대리 검문소에서 우회전해 간성읍을 지나 공현진교에서 우회전해 들어오면 된다.

진정한 여행의 맛을 즐기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로 속초에 도착해 시내버스(1번, 1-1번)를 타고 오봉리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면 된다. 이곳부터 약 10여분을 걸으면 마을에 도착하는데, 마을까지 가는 동안 가을 들녘의 고즈넉한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 ① 강원도 지정 기념물 제78호 함정군 가옥. 기억자형 북방식 가옥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 ② 지난 10일 마을 주민들이 초가지붕에 얹을 이엉을 엮는 작업을 하고 있다.
- ③ 왕곡마을 주산인 두백산을 오르는 등산로 입구. ④ 두백산 정상에서 바라본 마을 전경.
- ⑤ 1919년 설립돼 마을 주민들과 희노애락을 함께해온 오봉교회.
- ⑥ 왕곡마을 초입에 위치한 ‘송지호 재첩칼국수’ 식당. 이 마을 출신인 함석원씨(66세)가 지난 2008년 8월 개업했다. 왕곡마을에 있는 송지호에서 생산된 재첩을 원료로 사용하는데,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이다. 최근에는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숙성 호박을 넣어 맛이 더욱 좋아졌다는 평가다. 재첩이 숙취해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이 알려지면서, 밤새 술을 마신 사람들이 새벽부터 찾아오기도 한다.